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아름다운 계절이겠네요.

이곳도 이제 서서히 우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전염병을 바라보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나타나길 피조물도 고대하며 기다리는 지금... 모든 자연만물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9월말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모든 모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물론 50명 이내로 모여야 하며, 방역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와 함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릴리와 스라이니웃을 다시 플룩릿꼳폴교회 주일 사역을 위해 파송하였습니다. 예배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손을 일일이 소독해 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자매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플룩의 예배가 더욱 부흥하길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에 기도해 주신 와이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뽕춤번대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 많은 핍박을 받으신 듯합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 후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함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스텅프렝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소변줄을 끼어주는 시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길,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빛이 플룩에 비추어 지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 모든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껍썌삐에이 성도들이 깡데씨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사역자 썰과 사라가 마을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껍썌삐에이 교회가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껍썌삐에이 성도 중 '보라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지역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청년입니다. 얼마 전 치쿤쿠니아라는 열병에 걸려 심하게 고생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치료를 경험한 후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따로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썰과 사라가 그 가정을 방문하여 썰은

장년들을, 사라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보라이는 껍썌삐에이에도 따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누었고, 저희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마음을 이미 주셨기에 껍썌삐에이 교회를 따로 독립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주 사역자는 썰과 사라이며 예배 처소는 '썸'이라는 아저씨의 집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껍썌삐에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썰과 사라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후에 모든 생명체 식구들 안에서 주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며 매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가 아닌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왕으로 섬기는 이름으로, 두려움으로 인한 종으로써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신부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점점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생명체 식구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주님을 매일 보면서 사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와 한 생명,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주님께, 그리고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서 뿐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백성이 칭송하더라.’(행4:32~5:13)

****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 플록의 예배가 다시 부흥케 하시고, 와이 할아버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 플록마을의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2. 껍씨뼈에이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껍씨뼈에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썰과 사라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보라이 가정 이 껍씨뼈에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3. 생명체 식구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매일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신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케 하소서.